

목포 동별 맞춤형 특수시책 ‘톡톡 튀네’

부주동 상설 프리마켓·책 기부 릴레이 등 살기좋은 동네 만들기
부흥동 맞집 홍보 책자 제작하고 독거노인 소원 들어주기
신흥동 ‘꿈돌이 문화탐험대’ 등 공동체 활성화 시책 다양

목포시 지역 동 행정복지센터가 지역특성에 맞게 자체적으로 벌이고 있는 ‘맞춤형 특수시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소한 생활밀착형 시책에서부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색적인 시책까지 다양하다.

특히 이들 시책들이 ‘주민 눈높이’에 맞춰지면서 주민소통 강화는 물론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목포시에 따르면 부주동(동장 정지숙)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지역 학교·교회 등과 연계해 옷 기부를 받아 새마을부녀회에서 옷 수선과 손질을 거쳐 동 복지센터 1층에서 ‘상설 프리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연말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된다.

또 부주동은 관내 푸른 숲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책 기부 릴레이’도 펼치고 있다. 책 기부 릴레이는 신간 서적이 부족하고 자료 업그레이드가 미흡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것으로 1000권이 목표다. 현재 300권이 접수됐다.

아울러 ‘작은 도서관에 놀러온 미술사 공예’와 ‘꾸꾸는 청춘 미술도서관’도 운영하는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흥동(동장 노기창)은 유달리 음식점이 많은 관내 동 특성을 살려 평화광장 주변, 동근 섬 상가, 복산 먹거리 촌, 부영아파트 주변 먹거리 골목 등 음식 명소를 담은 ‘맛 집 홍보책자’ 제작에 들어갔다.

총 1000부를 만들어 전남도청, 경찰청, 대학교청 등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배포해 이들이 지역 식당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부흥동은 ‘독거노인 우울감 해소’를 위한 소원 들어주기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지역에 거주하는 위기가정 10세대와 독거노인 20명을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소원 물품을 전수조사한 뒤 소원 물품을 직접 구입해 12월까지 전달해주는 시책이다.

신흥동(동장 이승만) ‘꿈돌이 문화탐험대’도 눈길을 끈다.

꿈돌이 문화탐험대는 문화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주 취지다. 지역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자녀 120



목포시 부주동은 동 자체 특수시책으로 옷을 기부 받아 수선과 손질을 거쳐 상설장터에서 판매하는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kwangju.co.kr

명을 대상으로 공연나들이(미술, 시립합창단 등 시 기획공연), 극장 나들이(아이들이 선정한 영화), 서점 나들이(필독서 선물)를 분기별로 돌아가면서 시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밖에도 연산동의 ‘연산 푸른 음악회’, 유달동의 ‘책 읽는 문화가 있는 동네 만들기’, 용당 2동의 관내 상가 ‘나라사랑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 하당동의 출생 축하 ‘해피 통장 만들기’ 등 주민생활 편익증진

과 함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이색적인 시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목포시 자치행정과장은 “관내 23개 동 행정복지센터의 다양한 특수시책이 주민들의 복지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한 특색 있는 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유달산에 ‘목재문화 체험장’

목포시, 30억원 투입 교육장·전시체험관·실습장 등 조성

목포 유달산에 목재와 목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과 함께 직접 디자인해 제품을 만들어 보는 교육·체험 공간이 조성된다.

18일 목포시는 유달산 달성공원 주차장 인근(죽교동 271-2번지 일대) 총 7.5ha에 사업비 30억원(지목 24억, 지방비 6억)을 들여 교육장, 전시 체험관, 힐링 숲 체험공간, 야외 공작 체험장, 목재 놀이터 등 각종 시설을 갖춘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목포시에 따르면 연면적 120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설되는 목재문화체험관에는 지목공예 전시관(갤러리), 실습장, 목재자료도서관, 강의실, 목공예 놀이터 등이 들어선다. 이곳에 목재와 관련된 일반정보는 물론 목재제품 발달역사 소개, 목공예 작품전시 등이 이뤄진다.

또 야외시설로는 야외 공작 체험장을 비

롯해 야외 목재 놀이터, 힐링 숲 체험 공간 등이 들어선다.

야외 체험장은 글라이더·윙글라이더·투호 등 직접 만든 목제품을 이용한 놀이공간과 장승 깎기 등 체험 공간으로 꾸며진다.

그네·미끄럼틀·모험놀이대 등이 들어서는 목재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목재의 촉감을 느끼며 상상력과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순수 목재로 만들어진다.

아울러 난전시관, 자생식물원, 조각공원 등 기존 시설 중앙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여건을 활용, 체험관 주변에 유달산 둘레길과 연계한 목재문화 탐방로도 조성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초 유달산 목재문화 체험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내년 4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간다.

이번 용역을 통해 시는 목재 이용과 관련한 체험 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목재 문화 저변확대를 위한 전시물 배치와 상징



목포시가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유달산 달성공원 주차장 인근에 교육장, 전시 체험관, 힐링 숲 체험공간, 야외 공작 체험장, 목재 놀이터 등 각종 시설을 갖춘 ‘목재문화 체험장’을 조성한다. 체험장이 들어설 부지.

/목포=임영춘 기자 lyc@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후 관리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친환경적 친자연적 소재를 사용해 전통사회 이미지도 구축키로 했다.

목포시 공원녹지과장은 “유달산에 목재

체험관이 들어서면 해상케이블카와 함께 또 하나의 볼거리를 창출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산림교육과 산림서비스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한국 춤’의 진수 목포서 선보인다

29일 ‘무작-춤을 만들다’ 공연
시민문화센터 100여명 출연

한국 춤의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의미 있는 공연이 낭만 항구 목포의 가을밤을 달군다.

18일 목포시는 오는 29일 목포시민 문화체육센터에서 100여명이 출연해 한국 춤의 다양한 춤사위를 선보이는 ‘무작(舞作)-춤을 만들다’〈사진〉공연이 무대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전통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창작무 ‘그 기억을 묻다Ⅱ’(木浦舞), ‘숨, 꽃잎 떨어지나니’, ‘청 홍백 황 흑, 꽃자리 흐드러질 제’, ‘神出鬼沒(신출귀몰)’, ‘태평무’ 등 다양한 춤사위들이 펼쳐진다.

특히 이번 공연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총출동하는 보기 드문 특별한 무대이자 출연진들의 면면도 화려해진다.

목포시립무용단을 비롯해 전순희(서경대 교수) 여울무용단, 순현 무용단, 김선정(단국대 교수)무용단, 숙명여대 차수정 교수(특별출연), 목포시립무용단 박수경 상임안무자 등 100여 명이 출연한다.

시립무용단에 따르면 ‘무작’ 공연은 목포에서 처음 소개되는 전순희 예술무용단, 순현 무용단, 김선정 무용단 등과 협연으로 한국춤사위를 재조명·재창조해 정중동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춤의 세계를 목포지역에 소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수경 예술감독 겸 상임안무자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춤을 향한 심 없는 열정과 투혼으로 단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무용이라는 예술장르를 통해 의미 있는 목포 춤의 저변확대를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한국춤사위의 아름다움을 목포시민들에게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도시재생·관광마을 만들기 전략’

21일 일본 호리타 교수 초청 세미나 연다

목포대학교 문화관광연구소(소장 이진형)는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21일 목포오거리문화센터에서 일본의 저명한 도시재생 전문가인 호리타 유미코(Horita Yumiko) 교수를 초청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일본 와카야마 대학 관광학부 호리타 유미코 교수의 ‘문화적 도시재생과 관광마을 만들기 전략’이라는 주제 발표와 더불어 조정민 서울산책 대표의 ‘목포시 도시재생 추진경과와 현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주제발표에 이어 임진택 박사(목포시 문화유산 책임관), 박성현 박사(전남

도의회 전문위원) 및 이경아 박사(사단법인 공간과 삶 대표)가 함께하는 토론회도 진행된다.

이진형 문화관광연구소장은 “1897년 개항문화 거리 도시재생 등 목포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연안크루즈, 외달도 및 달리도 어촌뉴딜 사업 등과 더불어 향후 목포시 문화관광 사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사업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목포시 도시재생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석 기자 kjs0533@

태양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노후연금처럼 100KW급 매월 300만원 예상·50KW급 매월 150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 ▶한전과 20년 장기계약 안정적 투자
- 모듈: LG·한화큐셀 고효율 단결정
- 인버터: 이태리ABB, 독일카고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